제536호 (2012-12) 2012. 5. 24.

e-KIET 산업경제정보

대졸인력의 지역 간 이동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요 약]

○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대학졸업 인력의 수도권 유출·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심화
- 충청권의 경우 대학졸업생의 수도권 유출률은 2005년 15.9%에서 2009년에 51.0%로 상승하고, 강원권은 27.0%에서 56.4%로 상승
-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은 '수도권 고교 졸업→수도권 인근 대학 진학→수도권 취업' 현상에 의해서도 큰 영향

○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보다는 인접한 지역에서, 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에서 현저한 경향
- 반면, 광역경제권 간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미미하여, 이러한 차이를 수도권 집중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 존재

○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대졸인력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졸 고급인력이 지역의 전문기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지역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인력양성 및 기술혁신 지원이 필요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 최근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해당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표 1〉 참조).[1)]

–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경제권 모두에서 대졸인력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인력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두드러짐.

· 충청권의 경우 대학생의 수도권 유출률은 2005년 15.9%에서 2009년에 51.0%로 상승하고, 강원권은 27.0%에서 56.4%로 상승함.

○ 최근 데이터인 2009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먼 지역 간에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률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51.0%, 56.4%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은 대경권 22.4%,

〈표 1〉 고급인력 이동 현황 비교(대학졸업지역 기준)

단위 :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5	지역잔존율	89.2	75.1	87.4	80.1	91.7	66.2	91.2
	수도권유출률		15.9	9.5	8.0	4.6	27.0	5.7
2009	지역잔존율	91.5	42.3	65.6	59.2	77.5	39.2	74.3
	수도권유출률		51.0	25.0	22.4	15.1	56.4	19.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5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6,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1) 한국고용정보원이 2005년 대졸자 2만 6,544명과 2009년 대졸자 1만 8,066명에 대해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설문조사 기초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새로이 산출한 자료임.

호남권 25.0%, 동남권 15.1%로 낮게 나타남.

– 이를 대학졸업생이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 취업한 비율인 잔존율의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과 강원권은 각각 42.3%, 39.2%로 상대적으로 낮고, 대경권(59.2%), 호남권(65.6%), 동남권(77.5%)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대졸인력의 이동은 활발하지만, 비수도권 내 광역경제권 간 인력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표 2> 참조).

〈표 2〉 대졸인력 이동 현황[2](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 기준, 2009년)

단위 : 명

대학 소재지 / 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수도권	5,335	1,076	430	381	283	380	41	7,926
충청권	191	892	96	72	35	12	1	1,299
호남권	61	37	1,128	16	25	4	1	1,272
대경권	71	41	12	1,006	72	8	1	1,211
동남권	122	30	45	189	1,456	6	6	1,854
강원권	38	28	4	27	5	264	3	369
제주권	12	4	5	8	3		153	185
계	5,830	2,108	1,720	1,699	1,879	674	206	14,11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2) 〈표 2〉의 가로행은 직장소재 지역을 의미하고 세로열은 대학소재 지역을 나타냄. 앞의 〈표 1〉은 이를 토대로 유출률과 잔존율을 계산한 것임. 예컨대, 충청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108명인데 이 중 수도권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1,076명이므로, 충청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51.0%$=\left(\frac{1,076}{2,108}\times 100\right)$임. 또한 충청권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892명이므로, 충청권의 지역잔존율은 42.3%$=\left(\frac{892\text{명}}{2,108\text{명}}\times 100\right)$임.

□ 출신지역[3] 기준으로도 여전한 수도권 집중

○ 출신지역 기준으로 대졸인력의 권역 간 이동을 분석하여도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이를 권역권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36.6%, 42.0%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은 대경권 26.5%, 호남권 32.1%, 동남권 26.1%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대학졸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수도권 유출률에 다소 차이가 발생함.

– 예컨대, 충청권의 경우 출신지역 기준의 수도권 유출률 36.6%는 대학졸업지역 기준의 유출률 51.0%보다 14.4%포인트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표 4〉에서 보듯이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이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출신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표 3〉 대졸인력 이동 현황(대학졸업지역 vs. 고교졸업지역 기준, 2009년)

단위 : %

	기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수도권 유출률	대학졸업지역		51.0	25.0	22.4	15.1	56.4	19.9
	고교졸업지역		36.6	32.1	26.5	26.1	42.0	28.1
지역 잔존율	대학졸업지역	91.5	42.3	65.6	59.2	77.5	39.2	74.3
	고교졸업지역	92.0	56.5	58.7	57.9	63.0	51.5	62.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3) 대졸인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 지역이므로 고교졸업지역을 대졸인력의 출신지역으로 해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자 간 상이한 회귀현상

○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대졸인력은 출신지역으로의 회귀율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임.

○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다시 수도권으로 취업하여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출신이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1,412명 중 82.9%가 수도권에 취업하여 수도권 출신의 회귀율이 매우 높음.

○ 반면,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출신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출신이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4,226명 중 94.9%가 수도권에 취업하여 비수도권 출신의 출신지역 회귀율이 매우 낮음.

〈표 4〉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의 회귀율 비교(2009년)

취업지역	수도권 고교졸업자 중 비수도권 대학졸업자 취업분포		비수도권 고교졸업자 중 수도권 대학졸업자 취업분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수도권	**1,171**	**82.93**	**4,226**	**94.90**
충청권	119	8.43	112	2.52
호남권	37	2.62	20	0.45
대경권	36	2.55	30	0.67
동남권	17	1.20	41	0.92
강원권	27	1.91	22	0.49
제주권	5	0.35	2	0.04
전국	1,412	100.00	4,453	10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 '수도권 고교 졸업→수도권 인근 대학 진학→수도권 취업' 현상도 두드러져

○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요인뿐 아니라,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수도권 인근 대학에 진학·졸업 후 다시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상이 가중되어 나타나기도 함.

○ 2009년 현재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 5,865명 중 24.1%인 1,412명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중 77.7%가 각각 충청권(57.9%)과 강원권(19.8%)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충청권, 강원권으로 진학한 수도권 고교졸업생 1,097명 중 86.6%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수도권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 현황(2009년)

대학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빈도(명)	4,453	**818**	153	118	34	**279**	10	5,865
비율(%)*	75.9	**13.9**	2.6	2.0	0.6	**4.8**	0.2	100.0
비율(%)**	-	**57.9**	10.8	8.4	2.4	**19.8**	0.7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주 : *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의 권역별 소재 대학진학률.
**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진학률.

〈표 6〉 충청·강원권 소재 대학졸업생 중 수도권 출신의 이동 현황(2009년)

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취업자 수(명)	**950**	104	8	6	4	24	1	1,097
비율(%)	**86.6**	9.48	0.73	0.55	0.36	2.19	0.09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 권역 간 임금수준과 고용형태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미미

○ 대졸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현재 수도권이 193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171만 7,000원으로 가장 낮으나 표준오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졸인력 취업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2009년 현재 동남권이 79.5%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76.9%, 대경권은 71.3%로 가장 낮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임.

– 대졸인력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도 제주를 제외하고 전 권역이 1.5% 이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정규직 비율과 상용직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움.

○ 결국, 권역 간 대졸인력의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

〈표 7〉 권역별 고급인력의 임금(월급여) 비교(2009년)

단위 : 만 원

	평균	표준오차	표본 수
수도권	193.5	118.4	7,795
충청권	184.4	90.4	1,279
호남권	183.2	105.7	1,258
대경권	183.2	128.1	1,193
동남권	190.6	90.2	1,828
강원권	171.7	80.4	362
제주권	173.8	97.4	183
전국	189.7	111.4	13,89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표 8〉 권역별 대졸인력의 고용형태 비교(2009년)

단위 : 명, %

	합계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비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비율
수도권	7,589	1,751	5,838	76.93	6,622	907	60	87.26
충청권	1,206	339	867	71.89	1,062	130	14	88.06
호남권	1,183	309	874	73.88	1,019	154	10	86.14
대경권	1,124	323	801	71.26	998	123	3	88.79
동남권	1,758	361	1,397	79.47	1,553	198	7	88.34
강원권	336	95	241	71.73	294	40	2	87.50
제주권	170	51	119	70.00	137	32	1	80.59
전국	13,366	3,229	10,137	75.84	11,685	1,584	97	87.4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므로, 비수도권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 및 집중 현상을 권역 간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수도권과의 거리와 산업고도화 차이가 수도권 집중현상에 큰 영향

○ 수도권에서 먼 지역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대졸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강원권이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있는 호남권, 영남권에 비해 수도권으로의 유출률이 높음.

〈표 9〉 4개 지역 간 수도권 유출률 비교(2009년)

단위 : %

수도권과의 거리	권역	수도권 유출률	지역 잔존율	기타	합계
상대적 근거리	충청권	51.0	42.3	6.7	100.0
	강원권	56.4	39.2	4.4	100.0
상대적 원거리	호남권	25.0	65.6	9.4	100.0
	영남권	18.6	76.1	5.3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표 10〉 권역 간 산업구조 비교(2009년)

단위 : %

	주력산업[4]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합계
충청권				

자료 : 통계청,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011.
주 : 사업체통계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권역 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 또한 수도권과 유사한 거리에 있는 권역 간에는 산업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강하게 나타남.

– 즉, 수도권과 상대적 근거리에 있는 충청권과 강원권 중에서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강원권에서 수도권 유출현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원거리에 있는 영남권과 호남권 중에서는 호남권의 유출현상이 높게 나타남.

·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율은 강원권과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졸인력의 지역 간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산업 고도화 정책 필요

○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졸 고급인력이 지역 전문기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타 권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해당 전공의 대졸인력이 기업을 찾아 비수도권 내 권역 간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대학과 지역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필요

○ 지역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시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이 긴요함.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상생발전하는 차원에서 산학협력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타 전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 식품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호남권의 경우, 식품 관련 학과인 식품영양학과, 농과대학, 축산대학 관련 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대학은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기업의 기술소유자가 직접 대학과 공동 R&D를 진행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도 전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기술인력 교원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내 설립, 창업교육, 현장교육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 쌍방수요에 의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감.

– 대학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모색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고급인력을 지역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나감.

정 윤 선
(초청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market@kiet.re.kr
(02-3299-3060)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인 송병준 / **편집인** 하병기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 Fax : 963-8540 / www.kiet.re.kr